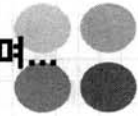


정보처리학회 논문지 편집위원회를 맡으며...



기축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9년도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맡게 된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윤찬현, 고려대학교 김선욱, 대전대학교 이봉환, 서울시립대학교 안상현, 연세대학교 이봉규입니다. 학회논문지 편집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지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 학회는 가입회원 수가 국내 최대 규모인 12,000명 정도이며 매년 600편 가량의 논문이 투고되고 있는 대형 학회입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IT산업에는 글로벌 기업의 땀과 노력이 있었으며, 지난 20년간 정부의 IT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IT R&D의 빛나는 성과가 그 바탕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의 결과물이 바로 회원 여러분의 학술 연구논문이고 그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향상은 학회 회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회는 2007년부터 회원 여러분의 논문 투고, 심사 등 모든 과정이 웹기반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논문지의 학술서비스는 더욱 향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편집위원장단 및 위원들은 학회 논문지의 질적, 양적 우수성을 제고하며 회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보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학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회 논문지 심사와 편집에 있어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의 적절한 주제를 기획하여 우수한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의 초청 논문을 각 주제 분과별 논문지 편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논문지 심사에 각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 분들이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논문지 심사 및 편집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우수한 심사에는 회원 여러분의 더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논문심사 기간 및 최종 게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문지의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분과별로 도출하여 전체적으로 논문 심사 및 게재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논문지 발전이 학회 발전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며 저희 편집위원회에서는 책임과 봉사정신으로 2009년도 논문지 편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학회논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논문지가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수 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논문지 총괄 편집위원장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윤찬현
논문지 A 편집위원장	고려대학교	김선욱
논문지 B 편집위원장	대전대학교	이봉환
논문지 C 편집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안상현
논문지 D 편집위원장	연세대학교	이봉규